

2013년 7월중 부산지역 경제 동향

개 황

□ 7월중 부산지역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의 혼조 속에 경기 회복 기대가 위축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완성차 해외 현지공장 부품 공급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 업종 등 수송기계 업종이 업황 호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기장비 업종, 조선기자재 업종 등은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
- 부문별로는, 산업활동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출 역시, 대일본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회복이 쉽지 않은 반면,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은 환적화물 증가로 호조를 보이는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음

□ 7월중 부산경제의 부문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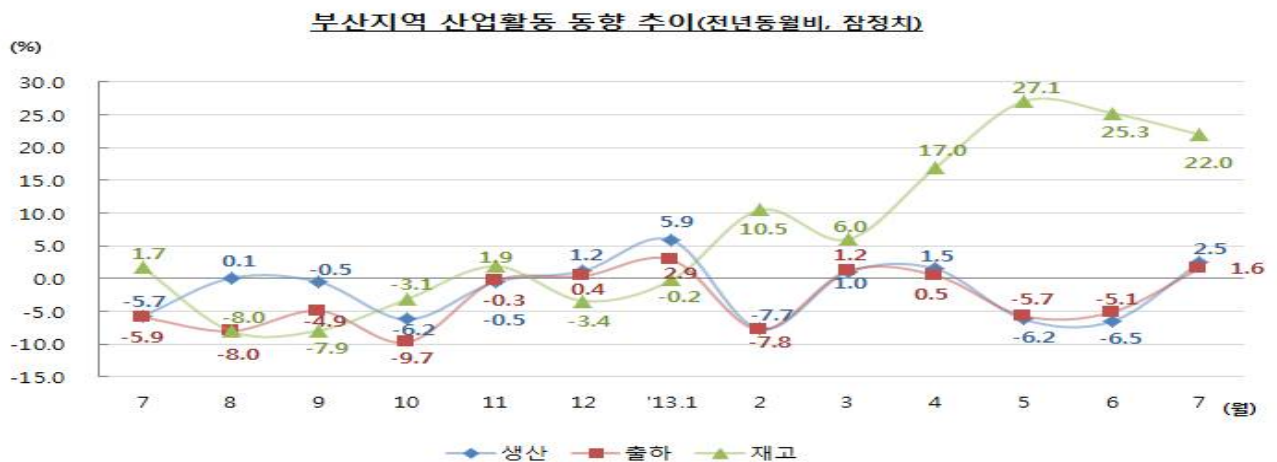
- 산업활동은 생산, 출하, 재고가 각각 2.5%, 1.6%, 22.0% 증가
- 수출은 11억8천2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수입은 11억7천5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부산항 물동량 처리 실적
 - 컨테이너 수송 실적은 1,508,367TEU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화물 처리 실적은 27,627,536톤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83.5%로, 전년동월대비 5.4%p 하락
- 신설법인은 346개체로,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
- 어음부도율은 0.12%로, 전년동월대비 0.11%p 하락
- 고용률은 56.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건축허가면적은 45만8천㎡로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
건축착공면적은 40만㎡로 전년동월대비 69.3%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108.1(201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지역의 일부 경제 지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엔저기조의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지역업체의 경영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또한, 내수 부진, 원청업체의 노사 갈등 등은 기업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이 요구됨

1. 산업활동

□ 7월중 부산지역 산업활동은 전년동월대비 생산, 출하, 재고가 각각 2.5%, 1.6%, 22.0% 증가

- 업종별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기타 운송장비’, ‘가죽, 가방 및 신발’ 등의 업종에서 산업활동이 호전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은 내수 경기 둔화 및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에 따른 입점 매장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두매장 판매 증가 및 공격적인 마케팅, 아웃도어 시장 매출 확대 등으로 산업활동이 활발
 - 또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항공기 부품의 대미 수출 증가로 산업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워킹화 및 트레킹화 열풍으로 OEM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활동이 호전
 - 반면, 전기장비 업종은 조선, 건설업 등 전방산업의 위축으로 산업활동이 부진, 특히, 선박용 수배전반 업체들은 선박 건조량 감소에 따라 물량 납품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기기 생산 업체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내수 부진을 보임



【 산업활동 증감내역(전년동월대비) 】

구 분	생 산(2.5%)	출 하(1.6%)	재 고(22.0%)
증 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47.1%), 기타운송장비(16.3%), 가죽, 가방 및 신발 (12.0%) 등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48.4%), 기타운송장비(16.7%), 가죽, 가방 및 신발 (6.6%) 등	가죽, 가방 및 신발(130.3%), 1차금속(23.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22.7%) 등
감 소	전기장비(-4.1%), 식료품(-4.2%), 1차금속(-0.7%) 등	전기장비(-3.1%), 1차금속(-2.1%), 식료품(-1.0%) 등	전기장비(-45.2%), 자동차 및 트레일러(-15.3%) 등

주 : 산업활동 증감률에 기여도가 높은 주요업종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내역임

2. 무 역

가. 부산지역 수출입

□ 7월중 수출실적 : 11억8천2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7월중 수입실적 : 11억7천5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4.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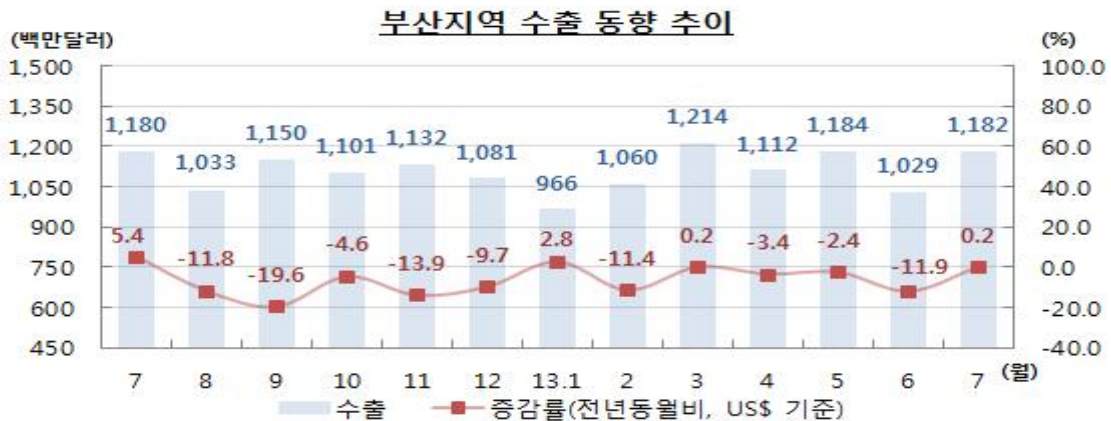
7월중 무역수지 : 7백4십만 달러 흑자

○ 국가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중국, 미국 등)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

- 대 중국 수출은 자동차(-35.2%)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46.1%), 플라스틱제품(83.0%)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대 미국 수출은 자동차부품(20.0%), 항공기부품(494.1%) 등 수송기계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철강제품(32.6%), 기초산업기계(62.6%) 등 주요 품목이 수출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28.7% 증가
- 반면, 대 일본 수출은 엔저 장기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철강제품(-10.8%), 수송기계(-2.4%), 수산물(-1.0%), 기초산업기계(-16.6%)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

○ 품목별로는 수송기계(12.5%), 수산물(26.2%) 등의 품목에서 수출 증가가 두드러짐

- 수송기계는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수산물은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



【 부산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 동향(전년동월대비) 】

구 분	비 중	증감률	내 용 (수출금액 기준)
중 국	17.2%	3.0%	수송기계(-21.3%), 수산물(100.0%), 철강제품(-11.6%)
미 국	11.7%	28.7%	수송기계(86.1%), 철강제품(32.6%),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1.7%)
일 본	10.4%	-10.2%	수산물(-1.0%), 철강제품(-10.8%), 수송기계(-2.4%)

[전국 수출입]

- 7월중 전국 수출실적 : 458억3천9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7월중 전국 수입실적 : 432억9천9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7월중 전국 무역수지 : 25억4천만 달러 흑자

【 부산의 수출입실적 전국비중 추이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7월(당월)	2013.7월(누계)
수 출	2.6%	2.5%	2.6%	2.4%
수 입	2.8%	2.7%	2.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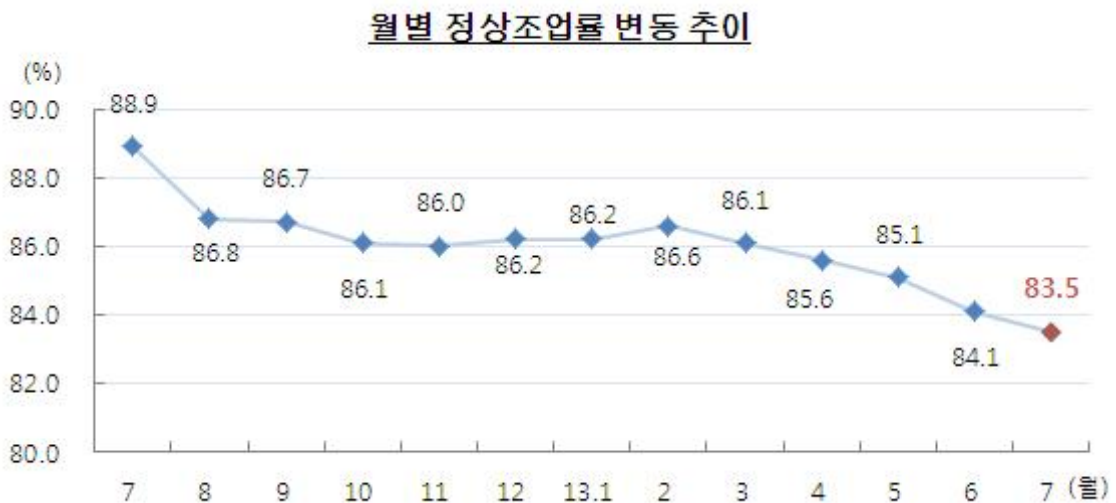
나. 항만물동량

- 7월중 컨테이너 수송 실적 : 1,508,367TEU(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세부항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수입(-1.0%), 수출(-3.9%), 수입환적(12.2%), 수출환적(12.0%)
 - 7월중 부산지역 컨테이너 수송 실적 전국비중 : 76.1%
- 7월중 화물 처리 실적 : 27,627,536톤(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세부항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국적선(8.4%), 외국선(4.8%), 연안선(-16.7%)
 - 7월중 부산지역 화물 처리 실적 전국비중 : 24.9%

3. 중소기업 조업상황

□ 7월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 : 83.5%
(전년동월대비 5.4%p 하락, 전월대비 0.6%p 하락)

- 업종별로는 내수 불황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국적 불명의 저급상품 시장잠식 등으로 매출 감소와 수익성이 악화된 공예업종, 계절적 비수기와 한정된 인쇄물량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종 등에서 업황 부진을 보임



- 정상조업 업체비율이 80% 이상을 보인 업종은 연식품, 염색, 기계, 니트, 선박수리,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가구 등 8개 업종이며, 직물, 인쇄, 비철금속, 공예, 플라스틱 등 5개 업종은 80% 미만으로 부진.

【 업종별 정상조업률 】

구 분	업 종
호 조	연식품(100.0%), 염색(95.1%), 기계(93.7%), 니트(92.9%), 선박수리(92.6%), 조선기자재(88.8%), 자동차부품(88.1%), 가구(85.1%)
부 진	직물(65.4%), 인쇄(61.5%), 비철금속(58.5%), 공예(58.3%), 플라스틱(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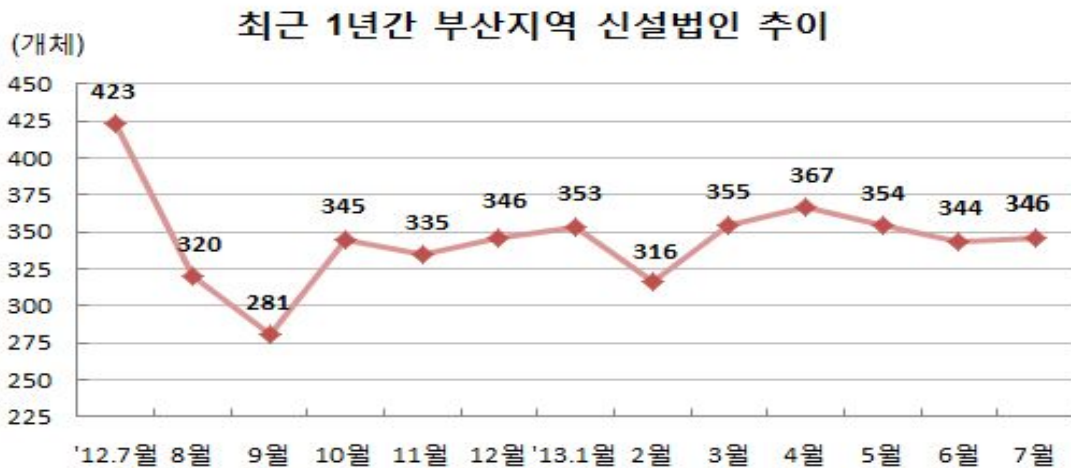
- 조사대상 1,545개 업체 중 238개(15.4%)가 조업을 단축하고, 17개(1.1%)가 판매부진 등으로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4. 신설법인

□ 7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 346개체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 전월대비 0.6% 증가)

- 지역 주력 산업의 매출 부진, 가계 부채 증가,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 상실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감소
- 지역 주력 제조업종의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제조업 창업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유통업 역시, 각종 산업재를 취급하는 도소매업 창업 부진으로 신설법인이 감소. 건설업은 설비투자 감소,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공사 수주가 감소하고, 공공공사 발주도 부진함에 따라 건설 관련 창업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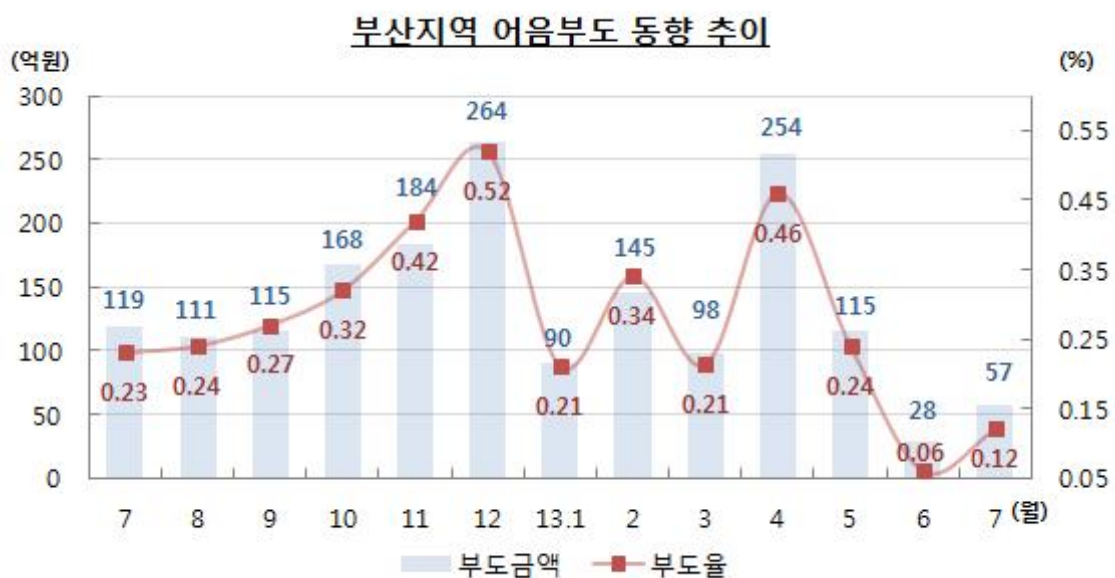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장비 임대·서비스업이 94개체(2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통업 80개체(23.1%), 제조업 78개체(22.5%), 건설업 44개체(12.7%), 운수·창고·정보통신업 27개체(7.8%), 기타(숙박, 요식업 등) 19개체(5.5%) 등의 순
- 자본금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가 237개체(6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52개체(15.0%), 3억원 이상 26개체(7.5%),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3개체(6.6%),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 8개체(2.3%) 순.
- 대표자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39개체(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9세가 79개체(22.8%), 30~39세는 75개체(21.7%), 60세 이상 32개체(9.2%), 30세 미만 21개체(6.1%) 순
- 지역별로는 해운대구 45개체(1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진구 38개체(11.0%), 강서구 33개체(9.5%), 연제구 32개체(9.2%), 사상구 30개체(8.7%), 동래구 25개체(7.2%), 중구 24개체(6.9%), 동구 21개체(6.1%), 금정구와 사하구가 각각 19개체(5.5%) 등의 순이었으며, 기장군은 6개체(1.7%)로 가장 적었음.

5. 어음부도율

□ 7월중 어음부도율 : 0.12% (전년동월대비 0.11%p 하락, 전월대비 0.06%p 상승)

7월중 부도금액 : 57억원 (전년동월대비 62억원 감소, 전월대비 29억원 증가)

- 주요 업종별 부도금액으로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55억원→40억원), 건설업(25억원→7억원), 도·소매업(31억원→4억원) 등이 감소
- 주요 업종별 부도금액 비중은 제조업(69.8%), 건설업(12.8%), 도·소매업(6.7%)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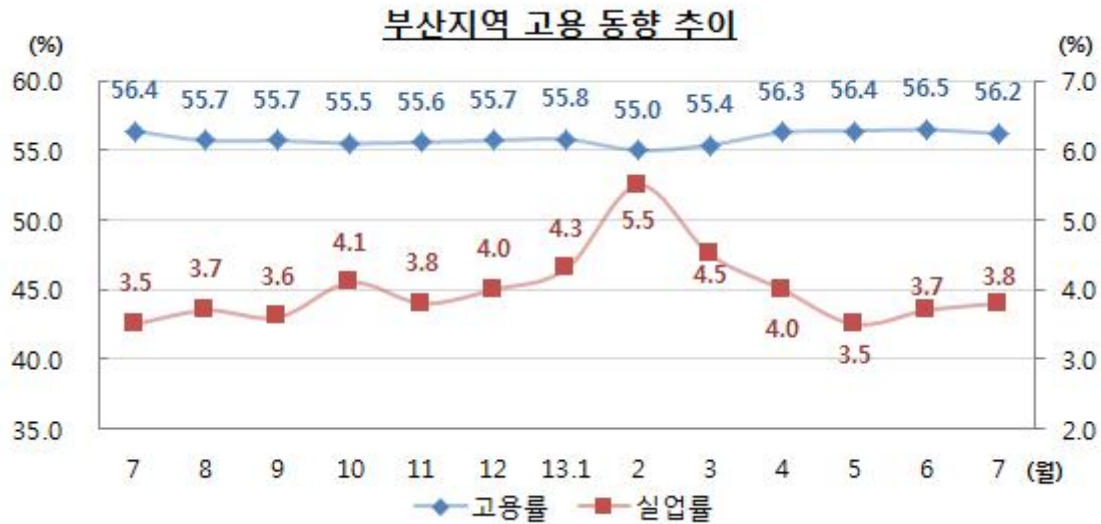


□ 7월중 부도업체수 : 6개체 (전년동월대비 1개체 감소, 전월대비 1개체 증가)

- 주요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개체→3개체), 건설업(1개체→2개체)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5개체→0개체)은 감소

6. 고용

- 7월 고용률 : 56.2%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전월대비 0.3%p 하락)
- 7월 실업률 : 3.8%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전월대비 0.1%p 상승)



- 7월 경제활동참가율 : 58.6% (전년동월과 동일, 전월대비 0.1%p 상승)

- 15세이상인구(노동가능인구)는 2,9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0.4%)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7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0.5%)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1,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3%) 증가

□ 7월 취업 동향

- 취업자는 1,6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1%) 증가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숙박음식업이 5천명(1.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9천명(0.6%)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4천명(-1.3%) 감소
- 고용률은 56.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7월 실업 동향

- 실업자는 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10.5%) 증가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7. 건 축

□ 7월중 건축허가면적 : 45만8천㎡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공업용(192.0%), 문교·사회용(110.5%) 부문은 증가한 반면, 상업용(-22.6%), 주거용(-7.2%) 부문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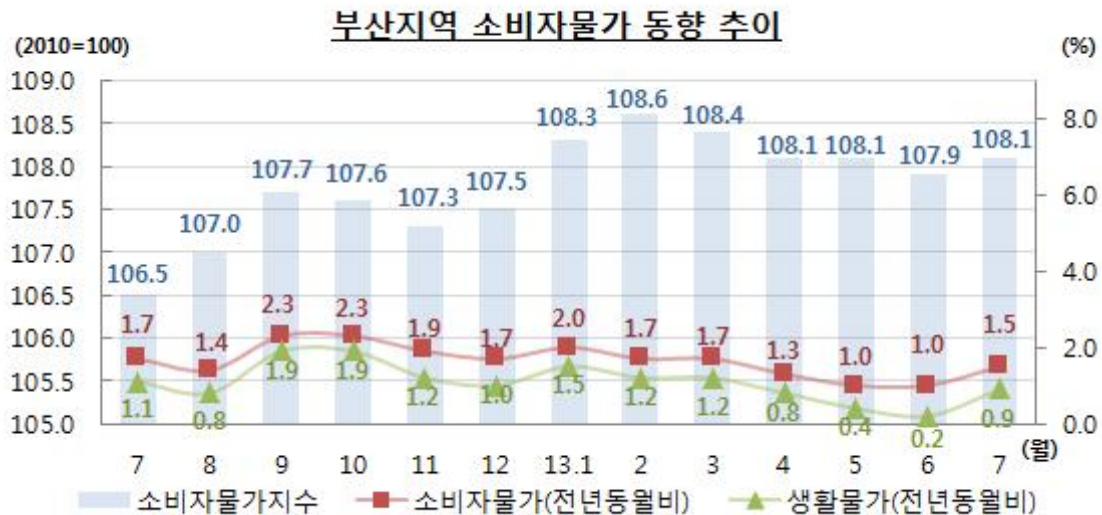
□ 7월중 건축착공면적 : 40만㎡ (전년동월대비 69.3% 증가)

- 전년동월대비 주거용(180.2%), 공업용(111.7%), 문교·사회용(27.6%) 부문은 증가한 반면, 상업용(-2.4%)은 감소

8. 물 가

□ 7월 소비자물가지수 : 108.1(201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식용유지(8.8%), 주류(6.8%), 빵 및 곡물(5.4%)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지출목적별로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4%), 주류 및 담배(1.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품목성질별로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9%, 1.1%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7.4(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월(동기)비, %)

		부 산							전 국						
		2012			2013				2012			2013			
		7월	2/4	연간	5월	6월	7월	2/4	7월	2/4	연간	5월	6월	7월	2/4
산업 활동	생 산	-5.7	0.8	0.0	-6.2	-6.5	2.5	-3.7	-0.3	1.1	0.8	-1.3	-2.5	0.9	-0.8
	출 하	-5.9	-2.2	-3.4	-5.7	-5.1	1.6	-3.5	0.8	1.4	0.8	-1.4	-2.3	0.3	-0.7
	재 고 ¹⁾	1.7	2.6	-3.4	27.1	25.3	22.0	25.3	3.6	4.7	3.2	2.7	3.0	6.7	3.0
대외 거래	수 출	5.4	-5.3	-6.9	-2.4	-11.9	0.2	-5.9	-8.7	-1.7	-1.3	3.1	-1.0	2.6	0.8
	수 입	-1.3	-10.6	-6.3	-10.4	-9.6	-4.8	-5.7	-5.2	-2.9	-0.9	-4.6	-3.0	3.2	-2.7
해운	컨테이너 실 적	1.0	7.5	5.2	-2.1	4.8	3.7	2.3	1.1	6.1	4.1	-0.8	5.6	3.2	2.8
	항 만 물 동 량	1.0	8.9	5.9	-2.3	5.9	4.3	1.8	2.4	3.1	1.6	-3.9	1.7	-2.8	-0.9
물가	소 비 자 물 가	1.7	2.6	2.4	1.0	1.0	1.5	1.1	1.5	2.4	2.2	1.0	1.0	1.4	1.1
	생활물가	1.1	2.2	2.0	0.4	0.2	0.9	0.5	0.8	2.0	1.6	0.2	0.3	0.9	0.4
소비	대형소매점 판 매	0.5	2.2	2.5	0.6	7.2	0.0	1.3	3.6	5.3	5.3	1.3	6.1	0.9	2.1
	백 화 점 판 매	4.5	5.8	5.2	5.8	12.0	4.6	6.5	7.4	5.4	5.5	3.1	5.6	-0.8	2.7
건설 투자	건축허가 면 적	-18.0	24.1	4.3	-27.8	136.6	18.5	-17.1	..	..	..	..	..	..	..
고용	고 용 률 ²⁾	56.4	56.0	55.6	56.4	56.5	56.2	56.4	60.3	60.2	59.4	60.4	60.5	60.4	60.2
	실업률 ³⁾	3.5	3.8	3.9	3.5	3.7	3.8	3.7	3.1	3.3	3.2	3.0	3.1	3.1	3.1
기업 신설	신설법인수	423	1,023	4,111	354	344	346	1,065	..	..	..	..	..	..	..
조업 상황	정상조업체 비율	88.9	90.0	88.4	85.1	84.1	83.5	84.9	..	..	..	..	..	..	..

주 : 1) 기말기준 2), 3) 기간평균기준